

금융 환경 변화와 IT의 대응

티맥스소프트 | 유웅진

1. 금융 환경의 변화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른 IT의 대응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IT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양해진 고객의 요구사항과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해졌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또한 경쟁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들이 제정되면서 기업의 경쟁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 역시 IT 대응의 속도를 촉진시킨 요소 중의 하나이다. 개별회사끼리 경쟁하던 기존의 경쟁판도가 무너지면서 인수, 합병 등을 통한 거대 금융그룹끼리의 무한 경쟁 체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적 자원으로 IT가 인식되게 된 것이다.

금융 IT의 대응방향은 외부적으로 시장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적응성과 내부 IT의 비효율적인 Cost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IT 인프라를 제공하는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금융업종간 경계가 없어짐에 따른 복합 상품의 출현에 맞춰 시스템의 유연성 요구가 증가하고,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채널의 다양화로 인한 금융 거래 패턴의 변화 및 변화하는 규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 후, Transaction의 증가로 인한 시스템의 증설이나 노후한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 등 내부 IT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려는 시도가 금융 IT의 대응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IT 대응의 선두에 차세대 시스템과 IT컴플라이언스가 존재한다.

2. 차세대 시스템의 도입전략

비즈니스 환경 및 전략의 변화에 따라 생존을 위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점(Growing Point)을 확보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과 계속되는 비즈니스 변

화와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점차 감소되어 비즈니스 가치제공의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이 차세대 시스템의 도입을 요구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기존 비즈니스와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어 혁신적인 사상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시스템이 차세대 시스템인 것이다.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차세대 시스템의 도입 전략의 주된 흐름은 크게 프로세스 중심의 시스템과 변화에 유연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세스 중심의 IT 시스템이란 말은 결국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에 IT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간 현업으로 대표되는 업무 영역과 전산 자원으로 대표되는 IT 영역의 이원화된 환경이 변화되어야 하며, 이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통합 및 자동화 지원, 비즈니스 프로세스 변화에 따른 IT 시스템의 단계별 지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고려한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뜻한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변화를 전제로 한다. 최근의 환경은 이러한 변화의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여러 비즈니스 영역들이 통합되거나, 기존에 없던 전혀 새로운 영역의 비즈니스도 수시로 등장하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도 쉽고 빠르게 적응이 가능한 유연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세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핵심 SW로는 전체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Framework와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용자들에게 상품정보를 제공해주는 Product Factory가 있다.

2.1 Framework 기반의 차세대 시스템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변환은 단지 메인프레임에서 오픈 시스템으로의 Downsizing 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메인프레임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TCO 부담, Web/분산 환경 및 SOA와 같은 신기술 반영에 대한 어

러움은 메인프레임을 대체할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발생시켰다. 오픈 시스템은 최신 기술의 적용, 시스템 확장에 유연성을 갖춘 UNIX 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레퍼런스 사이트의 확보를 바탕으로 차세대 시스템의 플랫폼으로 선택되고 있어, 오픈 환경의 차세대 시스템은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인정되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이 오픈 환경 기반 하에서 구축된다고 가정할 때 도입전략은 크게 리호스팅 솔루션을 통해 메인프레임 환경에서 UNIX 환경으로의 전환과 오픈 플랫폼 기반에서 전면 재구축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리호스팅 솔루션을 통한 전환은 가장 빠른 기간 내에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차세대 시스템 구축비용에 대한 비용 부담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인프라 구축, 마이그레이션 작업 단계 후 바로 성능 향상 및 안정성 검증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 단기간에 최대 성과와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인 방법론이다. 기존 운영방식 및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어 운영에 대한 리스크가 적어 차세대 시스템으로 바로 전환이 곤란한 경우, IT 조직의 적응력을 키워 To-be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점진적 전환 전략으로 고려 가능한 방법이다.

전면적인 재구축을 통한 차세대 시스템의 구축은 Application Framework 도입을 통해 개발 생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사 비즈니스에 적합하도록 구축하는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Framework 도입방식은 SI 자체 개발방식이나 Package 도입방식에 비해 자사 업무에 최적화된 효과적인 기능 구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성능의 안정적이고 유연한 기반 플랫

폼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어 최근 차세대 시스템 구축 방식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Framework, 특히 Application Framework이란 어떤 것이며 차세대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Framework을 도입하는지 알아보자. Framework이란 간단히 말하면 애플리케이션 구축 시 이를 검증된 아키텍처의 위에서 모든 개발자가 표준화된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컴포넌트와 툴을 포함한 하나의 틀이라고 정의되어 질 수 있다.

Framework을 도입하는 첫 번째 목적은 전체 로직 중에서 시스템 의존적인 로직을 분리하는데 있다. Framework은 DB연결, 미들웨어 연결, 메모리접근 등 시스템 의존적인 로직을 비즈니스 로직으로부터 분리하여 DBMS, 미들웨어, APM(Appl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 솔루션 등 시스템의 인프라가 변경 시 비즈니스 로직의 변경이 없는 독립적 비즈니스 구현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즉, Framework은 OS나 시스템 SW같은 아키텍처 모델과 현업에서 사용되어지는 비즈니스 로직 사이의 레이어에 대한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해서 개발자들이 비즈니스 로직만 신경 쓸 수 있게 해준다.

두 번째, 금융권에서는 타 산업과는 달리 거래라고 하는 개념을 위주로 코어 애플리케이션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Framework은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Layering을 통해 표준화된 거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N-Tier, N-Layer 기반환경을 제공하고 표준화된 업무 처리, 즉 거래 유형의 모형을 제공하고 입출력처리와 DB Access 분리를 통한 채널 및 백엔드로부터의 독립성 보장, 선후처리 환경의 업무 처리 기반 제공을 통한 애플리케이션을 공통화 등 입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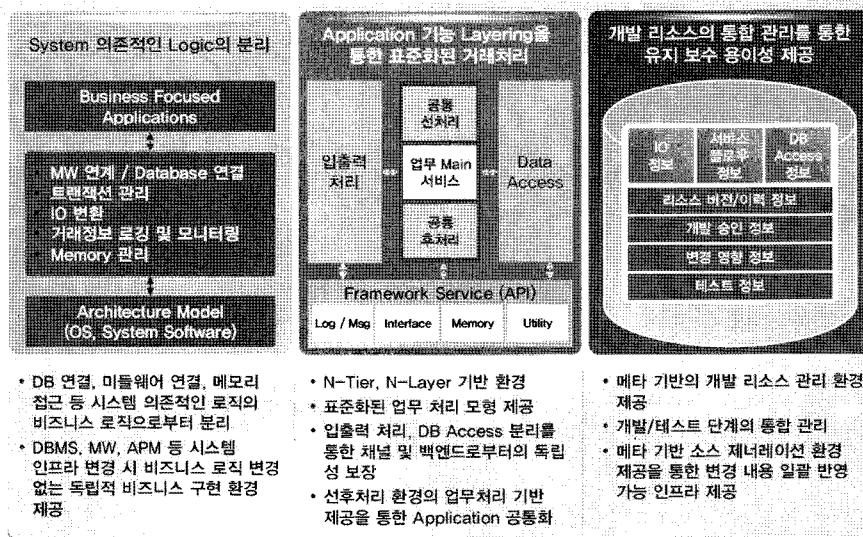


그림 1 Framework 적용의 목적

부터 거래에 대한 처리, DB Access, 출력에 이르는 모든 거래 유형별 흐름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 리소스의 통합 관리를 통한 유지 보수 용이성의 제공이다. 메타 기반의 개발 리소스 관리환경의 제공, 개발/테스트 단계의 통합 관리, 메타 기반 소스 제너레이션 환경 제공을 통해 변경 내용을 일괄 반영할 수 있는 인프라, 리소스 버전/이력 정보의 관리, 개발 승인, 변경 영향도 분석 등 Framework의 도입을 통해 대규모 개발환경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Framework은 단순히 개발 생산성 향상이라는 개발 측면의 서비스에만 국한되어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Framework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개발 컴포넌트나 유틸리티의 모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Framework은 개발단계에서는 업무 개발을 할 수 있는 GUI 도구를 제공하고, 개발자들이 자신이 해놓은 로직을 손쉽게 Test할 수 있는 Test환경의 제공과 이렇게 개발해 놓은 리소스에 대한 메타기반의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실제 로직이 돌아가는 런타임 환경에서는 클라이언트나 채널을 업무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에 이어주는 애플리케이션 차원의 구조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권 특성상 속도와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캐시 아키텍처, 배치 아키텍처, 후행처리, 24×365 등 다양한 거래처리 유형의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또한 통합관리 기능과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APM과의 연계를 통한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Framework은 대규모 개발환경에서 개발단계뿐만 아니라 수행과 운영단계에서도 전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규모 개발에 적합한 설계 표준화, 재사용성 극대화를 통한 개발생산성 향상, 가시적인 개발방법에 따른 유지보수 용이성 등 Framework 기반의 차세대 시스템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은 결국은 급격한 금융권의 변화에 대응하여 최신 기술을 흡수,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IT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향후 Framework은 ALM(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및 SOA 사상 관점에서 전사적으로 통합적인 개발환경과 튜닝 기능을 제공하고, 운영엔진에서는 장애처리 기능을 포함한 통합 제품으로 발전할 것이다.

앞으로의 Framework은 단순히 개발에만 필요한 Framework인 아닌, 분석, 설계, 개발, 검증, 배포, 운영관리 등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델링 툴, 형상관리 툴, 배포관리 툴, 메타 데이터 관리 시스템, PMS (Project Management System), 배치 운영환경, 통합 모니터링 툴 등을 지능화된 형태로 통합 제공되는 형태의 제품으로 확장될 것이다.

애플리케이션 전체 개발 주기(Application Development Lifecycle)동안 효율적으로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Framework의 존재는 지금까지의 단일 Tool들의 조합으로 대표되었던 기존의 차세대 개발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통합개발운영 전략을 지원하는 Framework의 등장은 분석/설계/개발/운영 전 과정의 지원, 설계 및 개발운영의 표준화, 설계와 개발의 Seamless한 연계, 일관성 있는 설계사상의 보장 등 기존 Framework을 한 단계 뛰어넘는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다.

SOA 사상을 수용하여, 단위업무 서비스를 ESB(Enterprise Service Bus)를 통해 플러그인/플러그아웃을 형태로 추가/삭제/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특화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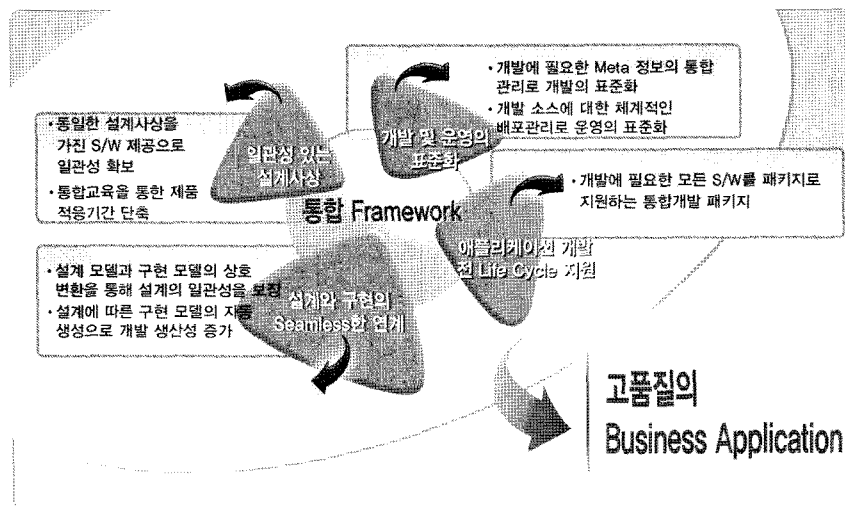


그림 2 통합 Fram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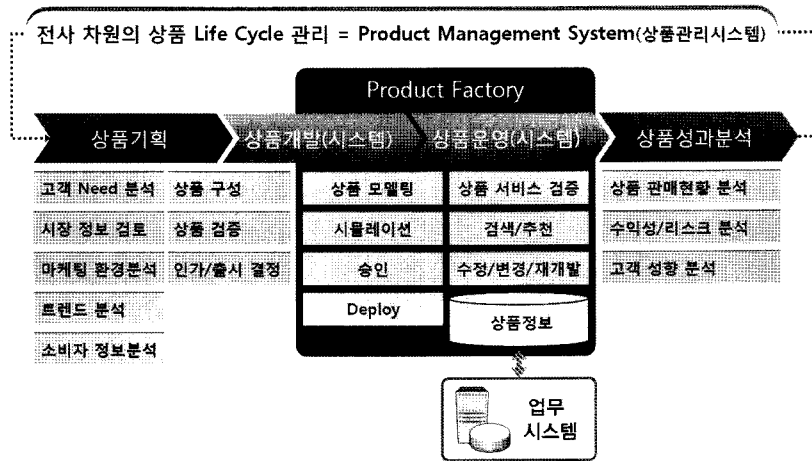


그림 3 Product Factory 기반의 상품관리시스템

능 및 site와의 유연한 연계를 보장하고 비즈니스 가시성을 최적화하고 유지보수성을 극대화하여 진정한 SW 조립의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것 역시 Framework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2.2 Product Factory를 이용한 상품 관리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품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즉, 상품 개발/관리의 전문화/다양화, 상품개발의 생산성 확보 및 Time-to-Market 실현, 상품의 자산화를 통한 재사용성의 극대화 등이 그 어떤 시기보다 높아지고 있고, 결합/복합 상품의 신속한 출시가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금융권의 대형화/겸업화로 차별화된 상품 및 복합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Product Factory는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다양한 고객 요구 및 경쟁 심화로 고객에게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은행, 보험, 증권 등을 포괄한 상품 경쟁력 요구를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Product Factory는 광의적으로 상품 기획, 개발, 판매, 분석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전사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협의적으로는 개발된 상품형상을 관리하고 업무시스템에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상품시스템을 의미한다.

DB에 상품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를 접근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상품시스템을 구축하였던 일부 기업들은 기존 방식의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통합상품관리 솔루션방식으로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을 처리하기에는 이미 설계된 상품 DB의 신상품 수용력이 한계에 도달해 버렸기 때문이다. 상품관리시스템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시스템의 관리 포인트가 다시 늘어

나게 되고 현업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간단히 말해서 상품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 DB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상품 DB를 새로운 상품도 수용 가능하도록 완전히 재설계해야 하지만 시스템의 변경에 대한 시스템 파급효과가 너무 커, 상품에 관련된 DB를 다시 설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신 상품관리시스템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품의 구성요소와 룰들은 예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예외처리 하여 신상품에 대한 요구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과거 DB기반의 상품관리시스템의 현실이다.

Product Factory는 시스템의 직관화를 위하여 상품의 규칙을 표현하는 룰(Rule)과 상품의 정형적 구조/서비스/속성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객체지향 기반의 상품 Tree를 제공한다. 따라서 각 요소별 서비스별 결합/복합이 가능하여 상품 개발/관리에 전문화된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다. 이는 기존 BRMS 솔루션이 단순히 DB에 상품 Rule을 결합하여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상품 출시의 민첩성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품 모듈을 자산화하여 상품간 신속한 결합/융합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위 상품으로부터 속성을 상속받아 특화된 속성만 따로 정의함으로써 새로운 상품을 빠르고 손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은 자동 소스 생성을 통한 서비스 모듈로 지원하므로 실제로 시스템을 운영할 때 DB 접근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없어 고성능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대용량 처리에도 효율적이다.

모든 기능들은 코딩 방식의 개발이 아닌 사용자 위주의 GUI 도구를 이용해 모델링하며, 애플리케이션과의 유기적인 연계로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일선의 업무 담당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Product Factory는 상품 개발 및 운영환경에서 사용자 위주의 기능과 화면 구성, 상품관련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증가, 표준화된 상품관리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 안정성 있는 상품관리 시스템 확보 등의 기대효과를 통해 기업의 상품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구로 점점 더 관심의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은행, 증권, 보험, 카드라는 고유 영역에서 개발되었던 상품들은 서로 결합되고 복합되어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Product Factory 역시 특정 업종에 국한되어서 적용되어야 한다면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그 수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업종과 거래 유형의 상품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표현할 수 있어야만 미래의 가치를 제공하는 진정한 Product Factory라 볼 수 있다.

기업들은 고객 세분화 정책에 따라 상품을 조금씩 변형하면서 각 고객층에 맞는 상품들을 다량으로 출시하고 있다. 때로는 아주 단순한 상품의 형태로, 때로는 다기능 다서비스를 추구하는 상품의 형태로 다양한 고객층에 맞도록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런 전략적인 상품의 출시와 마케팅 전략은 Product Factory를 기반으로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상품이 다양해지고 많아지면서 고객들은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 지 고민하게 된다. 이런 고객들을 위해서 상품추천 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조건으로 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Product Factory가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상품추천 서비스를 쉽게 구축할 수 있다. 만일, 상품추천 서비스를 고객맞춤형 서비스로 확장하고자 한다면 CRM 정보와 Product Factory를 연계하여 특정 고객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검색하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더 나아가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추출된 고객별 특성화 CRM 정보를 Product Factory와 연계할 경우 지능형 상품추천 시스템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은 선진화된 Product Factory를 통해 상품의 Time-to-market을 이루고 맞춤형 상품과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통합상품관리 솔루션 방식의 차세대 Product Factory는 금융 및 통신서비스 산업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며 조만간 그 가치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Product Factory는 상품 기획, 개발, 판매, 분석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전사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 현재의 다양한 상품모델을 제공하고 복잡한 상품의 다양한 결합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시하는 단계를 넘어 개별 상품에 대한 고객 가이드, 위험관리를 수반한 시뮬레이션 등에 따라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 및 상품의 개발에서 판매 이후 성과분석까지의 상품의 전 과정을 일괄 통제하는 전문화된 IT 시스템의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3. 규제변화에 따른 IT컴플라이언스

비즈니스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에 따른 규칙도 마찬가지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각종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IT의 대응을 IT컴플라이언스라 정의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가 변경되거나 제정되며, 이러한 각종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IT 인프라를 재정비해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대응을 IT컴플라이언스라 칭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재정비 노력에는 반드시 컨설팅과 SW라는 영역이 포함된다. 금융권 규제의 변화에 따른 IT의 대응인 금융권 IT컴플라이언스로는 최근 본격적으로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국제회계기준(IFRS)과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1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내 자본시장 개방 추세의 가속화에 따라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회계기준의 도입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있다.

2005년 국제 IOSCO(증권감독위원회,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가 IASC(국제 회계기준위원회,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에서 규정한 회계 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으로 권고하면서, 이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3월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고 2009년에서 2011년에 걸쳐 국내 상장기업에 한해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IFRS의 의무도입을 앞두고 금융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초기 컨설팅 시장과 시스템 구축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은 단순한 회계기준(GAAP)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시스템의 일대 변혁이 필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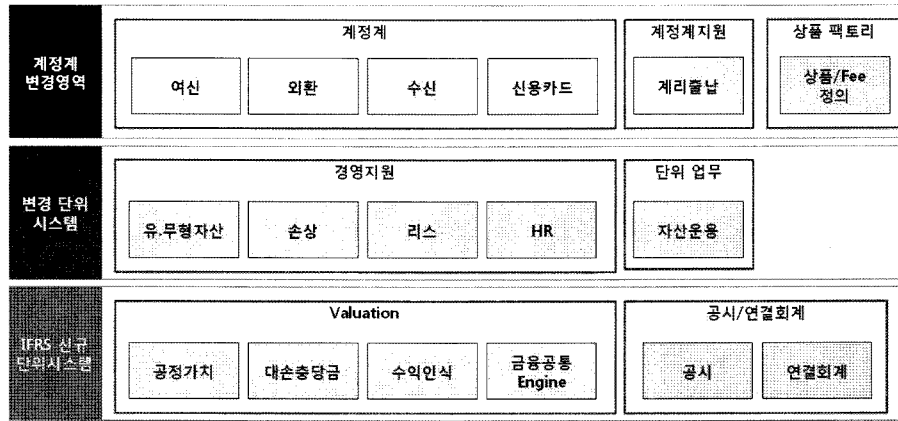


그림 4 IFRS 애플리케이션 구축 범위

사항이다. IFRS 도입에 따른 업무적 영향 범위는 크게 재무적 영역과 비재무적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특히 금융상품과 관련된 재무적 영역의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영향을 정리하면, 재무적 영역에서의 변화는 금융상품 분류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공정 가치의 평가, 대손충당금 산출 방식의 변화,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수익 인식, Fair Value Option 등을 들 수 있으며, 비재무적인 영역에서의 변화로 공시의 연결재무제표 의무화, 영업권 평가 변화, 자본 및 부채의 분류 변화에 따른 유무형 자산 평가, 외화환산 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룹차원의 회계 정책뿐만 아니라 상품 Pricing 및 포트폴리오 관리, 회계처리 프로세스 및 회계 조직 변경 등의 전략/프로세스/조직에 걸친 전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IT 시스템도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변경과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대손충당금 평가’, ‘연결 시스템 구현’ 등의

IFRS 요건 충족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구현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데이터 측면에서는 IFRS를 위한 별도의 데이터 Mart를 구성하고 계정계 DB에 IFRS 요구 데이터를 구현해야 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자회사와의 시스템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내 금융권의 IFRS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자체 개발로 진행되는 것이 현재 추세이다. 금융권에서 자체 개발을 선호하는 것은 패키지 솔루션을 도입할 경우 많은 부분에 대해 커스터마이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럴 경우 패키지의 장점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유지보수도 어렵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부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나 Hedge, Cash Flow 산출과 같이 복잡한 계산이나 금융공학적인 모델이 필요한 Valuation 영역에는 Engine 형태의 솔루션 도입을 통한 구축을 고려하고 있다.

IFRS 도입에 따라 신규로 개발이 되는 주요 영역인 Valuation 영역은 대손충당금/수익인식/공정가치 평가의 주요 값을 산출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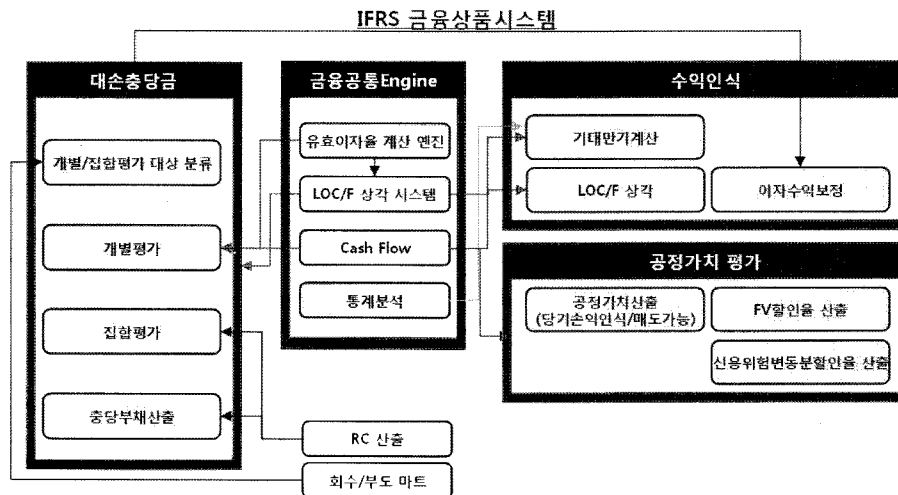


그림 5 IFRS 금융상품시스템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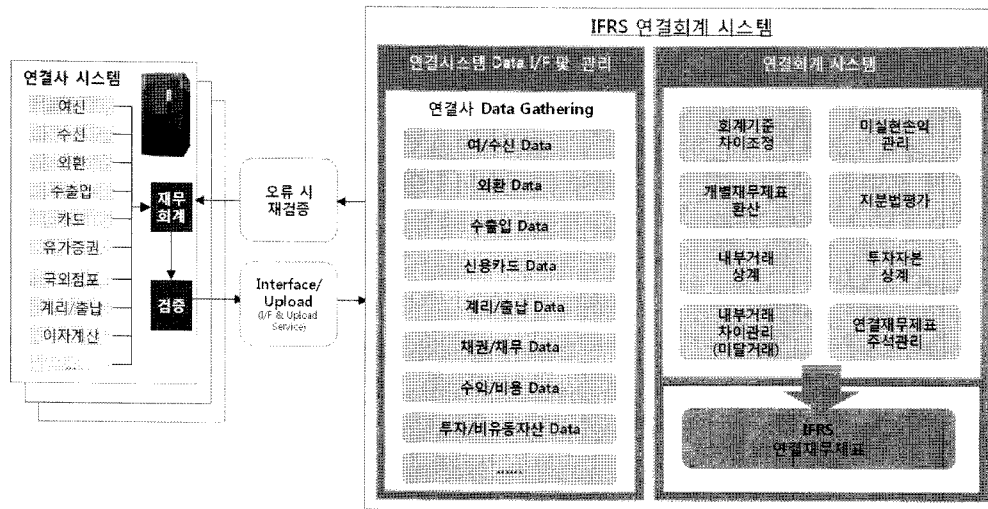


그림 6 IFRS 연결회계시스템(연결/공시 영역)

연결회계 영역의 IFRS 연결회계시스템은 계열사의 IFRS 회계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IFRS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경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할 때 금융권의 또 다른 화두인 차세대 프로젝트와 같은 계정재 구축 프로젝트 등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과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IT 시스템의 광범위한 변경과 변화를 수반하는 IFRS 시스템의 구축의 특성상 회계컨설팅, 현업, IT 담당자, 솔루션 벤더 등이 유기적인 협업관계를 형성하여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적인 요건이 될 것이다.

3.2 AML(Anti Money Laundering)

지난 10년간 UN,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자금세탁 관련규제가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자금세탁방지(AML)에 대해 관련 금융업계가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자금세탁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이다. 현재 자금세탁방지 노력과 관련해 출범된 범세계적 전문기구인 FATF(자금세탁관련 국제 TF 팀)와 Egmont Group(세계 금융정보분석기구 협의체) 등이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APG(Asia/Pacific Group of Money Laundering)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기구들은 자금세탁 행위 혹은 혐의거래에 대해 각각의 조치사항 및 권고안들을 채택하고 있으며, 각각의 기구들에 가입한 나라별로 독립적 FIU가 설립되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2000년 4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재정경제부에 KoFIU(한국금융정보분석원) 구축기획단이 설치된 뒤 2001년 11월 28일 발족이 완료되었으며, 이후 국내외 금융기관들과 연계해 금융투명성 제고를 위해 혐의대상 거래들에 대한 심사 및 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아가, 자금세탁방지법의 통과로 기존의 금융 업무에 대한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기존의 금융시스템과 통합되어 사용될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KoFIU 및 기존의 범세계적 자금세탁방지 관련 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금감원이 제시하는 [자금세탁방지업무] 자료에 의하면,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란 “재산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자금세탁관련 법령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방지 혹은 색출하기 위해 금융기관 별로 현업업무에서 금융제도(STR, CTR, EDD 및 기록보존)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보완하는 과정을 지칭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구축하게 될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은 금융,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을 아우르는 종합적 성격의 관리시스템이어야 하며, 나아가, 업무의 물리적 제도화라는 수행적 측면뿐 아니라, 외부 전문기구와의 긴밀한 정보 교류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공유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 또한 성공적인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결조건이라 하겠다.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은 크게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KYC(Know Your Customer) 시스템을 통한 신규 혹은 기존의 고객들에 대한 고객 실사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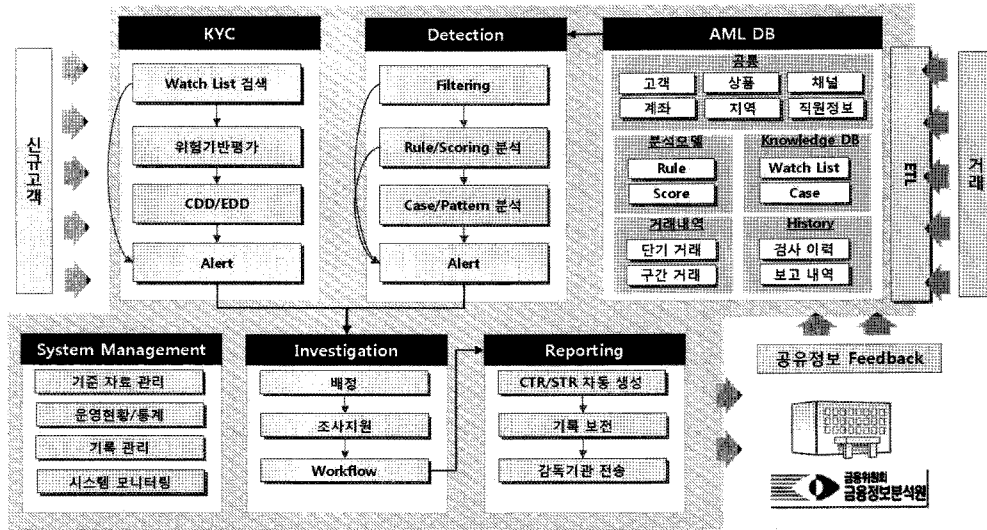


그림 7 AML시스템의 개념적 구성도

둘째, 각종 분석기능(룰/스코어링, 필터링, 케이스 분석)들을 통한 혐의금융거래 도출기능.

셋째, 위의 두 과정을 통해 도출된 혐의거래 혹은 혐의거래자에 대한 철저한 내, 외부채널을 통한 검증 및 조사과정의 기능.

넷째, 위의 검증 및 조사과정을 통해 도출된 혐의내역에 대한 유관기관 보고기능 및 자료보관 기능.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은 위의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되, 금융상품에 따라 룰 혹은 케이스 별 분석과정에 있어 업계별로 특수한 매개변수(예: 상품의 복잡성 vs. 상품의 유동성)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대상(예: 입출금 거래 vs. 유가증권 매매) 또한 선별될 수 있는 기능상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의 구축 및 사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확은 자금세탁의 시도 및 혐의거래를 금융기관 자체의 능동적인 업무표준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나아가, 기존의 수동적인 외부채널과의 업무협력(예: 정보교류) 과정을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기술적으로 자동화 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시스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좋은 효과이다. 마지막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범세계적 업무표준화 과정은 국내외 유관기관 및 외국의 금융기관들과의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관련 문제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적 발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비즈니스와 IT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현재의 금융 환경의 화두는 '변화'라는 단어일 것이

다.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이고 급진적인 대응인 Framework기반의 차세대 시스템, 다양해진 상품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Product Factory, 각종 규제 및 기준의 변화에 따른 대표적인 IT컴플라이언스인 IFRS와 AML 등 변화에 대한 대표적인 IT의 대응을 살펴보면, 결국 금융 IT라고 하는 것은 급격한 변화와 유연성을 요구하는 비즈니스와 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IT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비즈니스의 편리성 때문에 새로운 IT기술을 요구할 수도 있고,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혀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비즈니스 요건이 창출될 수도 있다. 어느 한쪽이 배제된 발전이라는 것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발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비즈니스와 IT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변화'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비즈니스와 IT의 상호작용은 결국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영진

(현) 티맥스소프트 컨설팅사업본부 수석 컨설턴트
코어플러스 컨설팅사업부 CRM 컨설턴트
LG CNS 공공사업부 System Engineer
관심분야: Framework, Product Factory, SOA
E-mail : yuj71@tmax.co.kr